

Practitioner's Notes

2020 서울국제통번역포럼 대담

대담자: 샤론 최 *

진행자: 김혜미

샤론 최가 생각하는 자신의 경쟁력

질문 학부 때 영화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문성이 통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영화에 대한 전문성이 훌륭한 통역을 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샤론 최 거의 70~80%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통역을 할 때 아티스트 또는 고객이 하는 말을 모두 다 기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이 말한 것을 최대한 흡수해서 나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서 말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영화, 또 봉 감독님의 여러 작품, 그리고 배우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배우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매우 추상적이고 예술적이고 때로는 매우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언어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도 이미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통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외에 자신이 통역사로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70~80% 정도라면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샤론 최 어렸을 때부터 두 언어를 구사했고 두 문화를 동시에 흡수하면서 살아온 이중언어 구사자(바이링구얼)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 전담 통역사로 활동한 샤론 최(최성재) 통역사와의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구어체를 다듬었으며, 실제 문답 순서와 달리 편집하였다.

영화 <기생충> 전담 통역

질문 영화 <기생충>의 통역을 맡게 된 경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직접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팀에서 섭외하신 건가요?

샤론 최 답변을 위해 제가 그전에 했던 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생충> 통역을 맡기 전에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버닝>의 미국 개봉 당시 1주일 정도 프로모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버닝> 쪽 홍보 대행사 측에서 저를 <기생충> 팀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해 주셨고 승낙했습니다. 제일 처음 맡은 통역은 봉 감독님과 모 언론사 간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사전 면접이나 시험도 없이 갑자기 인터뷰 통역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역이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감독님께서 제 통역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생충> 팀에서 전체 캠페인 통역을 전담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기생충>의 전담 통역사로서의 경험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생충 전과 후의 삶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샤론 최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제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고 또 공항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생충>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십 대 영화감독 지망생으로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영화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제작자, 아티스트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존경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생활은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의 저로 글을 쓰고 있고 영화감독으로서 저만의 목소리를 찾는 중이며 다양한 창작 방식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칸영화제에서 다른 통역사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나요?

샤론 최 네 저는 사실 칸영화제 공식 통역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기생충>의 한-불 통역사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이분은 파리나 프랑스 전역에서 이런 문화적 행사를 많이 통역하시는 전문 통역사인 것 같았습니다. 재미

있었던 것은 그분이 노트를 다 쓰셔서 제 노트패드를 빌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노트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노트 테이킹을 거의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통역하시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주 매끄럽게 통역을 하셔서 프랑스 팀이 참 고마워하고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관심도 받았고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 성공 이면에는 훌륭한 번역과 통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영화에 입문할 수 있는 통로가 통역과 번역인데요, 아마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전문 통번역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90%는 통역과 번역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샤론 최 <기생충>의 경우에는 번역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캠페인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영화 자체가 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시사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 영화에 푹 빠진 것 같았고 인터뷰나 제 통역은 케이크에 체리를 얻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미 봉 감독님과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존재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했던 부분이 제가 했던 역할이었고 캠페인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샤론 최님이 공식적으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언론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통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매끄러운 통역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샤론 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거의 인터뷰만 수백 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초 무렵에는 질문만 들어도 이미 답을 예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상식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통역이 쉬워지기도 했지만 늘 뭔가 새로운 이야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서도 많은 통역을 했는데요 팀 멤버들이나 봉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은 연설문을 사전에 공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통역해야 하는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인터뷰 때는 영화의 제작 의도, 제

작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샤론 최의 통역을 위한 노력과 경험

질문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 통역사가 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통역을 해내셨는데, 혹시 통역 스킬 향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샤론 최 먼저 통역을 해야 하는 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모든 인터뷰를 읽고 관련 동영상도 시청했습니다. 봉 감독님이 <기생충>뿐 아니라 이전 작품과 관련해서 하셨던 인터뷰도 모두 찾아서 읽어 보았고 기생충 관련 모든 영어 기사를 수집해서 읽으면서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묘사할 때 사용하는 모든 표현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팟캐스트를 반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통역을 한다기보다는 그대로 따라 하면서 두뇌가 영어로 말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두뇌가 영어 모드로 세팅이 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내용이 제 분야와 상관없는 것일 때에도 계속 의식적으로 여러 단어에 상응하는 표현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면서도 제 머리 뒤편에서는 계속 통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설령 그것이 제 주요 분야인 영화와 상관없는 대화라 할지라도 제가 잘 모르는 표현을 계속 찾아보려 노력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어휘와 표현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질문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력을 늘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샤론 최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단기 기억력은 괜찮은데 사실 친구들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박을 받기도 하는 걸 보면 장기 기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연습한 것은 없고 또 노력해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잘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려 노력했고 또 절박함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도 평상시에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도

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샤론 최 저는 주로 영화와 내러티브, 그리고 창의적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자기만의 특별한 속어를 만들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최대한 직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님께서 어떤 한국 속담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상응하는 미국 속담을 찾아서 통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통역한 후 그 의미를 청중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언어는 참 묘한 구석이 있어서 어떤 표현은 완전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창의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일례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까워질수록 인터뷰 통역이 정말 많았는데도 주로 봉 감독님께 기분을 묻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사용하신 속담은 “칭찬은 잠자던 말도 춤추게 한다.”였습니다. 미국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속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속담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많은 분이 재미있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 꾸며내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속담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과거 통역 일을 기억했을 때 통역사로서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샤론 최 최고의 순간은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저에게 너무나 상징적인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되었을 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다섯 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충분히 잠을 못 잔 상태였습니다. 후보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가 잡혔고 그중 상당 부분은 TV에 생방송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봉 감독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노트 테이킹도 하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텅 비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기억나는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꾸며서 통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돌려보았는데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과 그 순간의 공포가 기억납니다.

질문 혹시 동시통역을 해볼 기회도 있으셨나요? 순차 통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샤론 최 제가 동시통역을 해야 했던 경우는 대부분 질의 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고 아티스트들이 발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캠페인 동안 영어로는 이십 분 동안 말할 수 있다면 <기생충> 팀은 제가 통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십분 밖에 없어서 최대한 배우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기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시로 하면서 요약 통역을 했습니다. 동시통역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한편으로 또 들어야 하는 동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헤드셋 같은 장비 없이 하다 보니 정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제가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또 이 소리를 무시하고 듣고 이해하고 또 동시에 통역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멀티태스킹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질문 어떠셨나요? 순차통역보다 어려웠나요?

샤론 최 순차통역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칸영화제 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 봉 감독님과 기자의 질문을 동시통역으로 요약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40 분 동안 쉬지 않고 저 혼자 동시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이 끝나갈 때쯤 완전히 녹초가 되어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저의 오감 중에서 듣기 말하기 외에는 모두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동시통역은 정말 너무 어려웠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샤론 최님은 통역하실 때 메시지와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통역하시면서도 표현이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잘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샤론 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통역을 할 때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제가 영화 일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영화를 사랑해 왔고 학부에서 영화 이론을 공부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영화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된 언어의 매우 친숙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영화 애호가로서 여러 Q&A 세션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고 또 청중이 어떤 답을 기대하는지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중언어 구사자라는 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실제로 통역을 하실 때는 노트를 별로 보지 않고 통역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과 기억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궁금합니다.

샤론 최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노트에 80% 정도 기억에 20% 정도 의존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제가 피곤한 날에는 계속 노트만 보면서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노트 없이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례로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무대에서 통역할 때나 청중이 많은 행사의 경우에는 노트 패드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 웬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은 완전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통역했습니다.

질문 통역사로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일하실 때 매우 긴장될 것 같은데 심지어 무대에서 통역을 할 때조차도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의 통역을 하러 가실 때 어떤 태도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샤론 최 사실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침착한 척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리도 떨리고 백스테이지에서 과호흡이 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후에 영상을 볼 때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긴장한 티가 나지 않아 저도 놀랐습니다. 실은 아주 불안했거든요. 긴장을 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백스테이지에서 최대한 길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삼십 초 정도이긴 하지만 명상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에게 ‘이것은 별일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영화감독이나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면 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통역에서 중요한 것은 평정심 유지이기 때문에 흥분하여 패닉 상태가 오면 바로 생각이 끊기고 통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법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샤론 최의 미래 행보

질문 앞으로 계속 통역사로 일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영화감독 쪽에만 집중하실 계획입니까?

샤론 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물론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관련 통역 일에 분명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에는 전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샤론 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집중하는 것이 영화이고 제 목표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아카데미 작품상과 같은 이런 상이 목표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감독하고 싶습니다.

질문 앞으로 어떤 유형 혹은 장르의 영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통역사가 아니라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샤론 최 대본을 쓰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대본을 쓰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있던데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경험에 관해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영화가 사람들에 대한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사실 영화라는 것은 최종 편집을 마

쳐야 그것이 비로소 어떤 영화인지 알 수가 있고 그 과정 중에 계속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다면 한국의 시골을 배경으로 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여성 감독 혹은 여성 조감독으로 일한다는 것이 어떠 한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분야가 남성 위주의 업계였고 또 미투 운동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샤론 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도 달라지고 있고 점점 더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만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으면서 관객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업계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깊이 자리 잡은 문화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앞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통번역사와 전공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인공지능과 기계 통역의 시대에 통번역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론 최 물론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통역은 여행을 하거나 아주 기본적인 소통을 외국어로 해야 하는 일상적인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문화와 감정 등 다양한 것을 포괄하고 통역,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창의력은 온전히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보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을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전문 통역사, 번역사 그리고 통번역대학원생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다면요?

샤론 최 제가 일 년 정도 통역을 했는데 아직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고 제가 이 전문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연습 등 통역 훈련에 대해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정말 어렵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라 통번역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의 삶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이 포럼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행자 소개]

김혜미

국제회의통역사 겸 영어 MC는 정부기관과 기업이 개최하는 다양한 국제회의 및 홍보행사등의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을 수행하였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토마스 사젠티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 등 고위급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진행을 담당하였다.

[대담자 소개]

샤론 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예술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여러 단편영화를 제작 및연출했으며 대중에게는 영화 <기생충>의 전담 통역사로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 영화 <버닝>과 <미나리> 등의 홍보 캠페인에 통역사로 활동하며 한국 영화를 널리 알리는 데에 주력해왔다.2020년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국제포럼이 선정한 제 12회 영산 외교인상을 수상했다.